

9월 하나투어 & 모두투어 송출객수 각각 전년대비 10.6%, 28.4% 성장

News / Issue

- 9월 하나투어 & 모두투어의 송출객 수는 각각 269,354명(+10.6% YoY), 146,234명(+28.4% YoY) 기록
- 여행수요가 여러 악재의 여파로 4분기로 이연 되면서 비수기의 시작인 9월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시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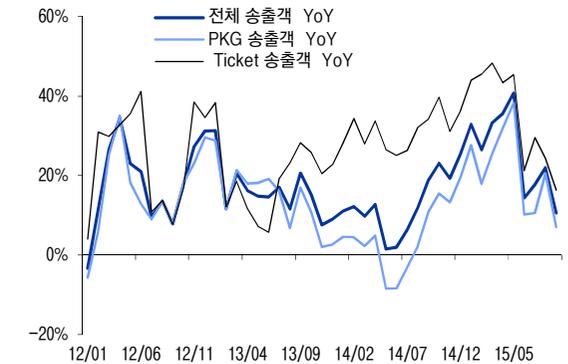
Implication

- 하나투어 9월 패키지 송출객수는 159,852명 (+7.0% YoY), 티켓 송출객수는 109,502명(+16.3% YoY)
 - 지역별 인원 비중은 동남아 26.2%, 중국 18.7%, 일본 25.9%, 유럽 9.7%, 남태평양 4.8%, 미주 3.5%
- 모두투어 9월 패키지 송출객수는 87,397명 (+14.1% YoY), 티켓 송출객수는 58,837명(+57.8% YoY)
 - 지역별 인원 비중은 동남아 33.8%, 중국 28.0%, 일본 19.8%, 유럽 8.5%, 남태평양 6.9%, 미주 3.0%
 - 일본 +62.2%, 동남아 +17.1%, 유럽 +5.1% 등 항공권을 중심으로 하 성장세 지속
- 일본이 여전히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가며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및 미주 등 장거리 여행에 대한 수요도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
- 10/1일 기준 10월, 11월, 12월 패키지 예약 증가율은 하나투어 +25.9%/+36.2%/+31.2%, 모두투어 +20.1%/+33.5%/+70.7%

Call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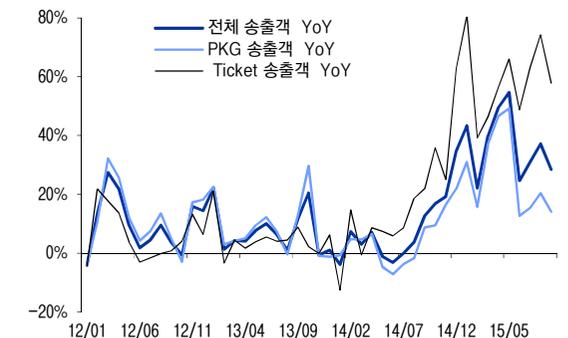
- 비수기 진입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등 여러 악재의 영향에 따른 여행 수요 이연으로 4분기 여행업 호조 예상
- 특히 4분기에는 장거리 여행 비중이 확대되면서 실적 모멘텀 강화될 것으로 기대
- 여가선호 현상 확대, 휴일/연휴 및 항공권 공급 증가에 따른 국내 아웃바운드 시장의 성장 스토리는 지속 유효

하나투어 월별 송출객 증가율



(자료: 하나투어)

모두투어 월별 송출객 증가율



(자료: 모두투어)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황현준)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

구분	투자등급 guide line (투자기간 6~12개월)	투자등급	적용기준 (향후 12개월)	투자의견 비율	비고
Sector (업종)	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Overweight (비중확대) Neutral (중립) Underweight (비중축소)			
Company (기업)	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Buy (매수) Hold (보유) Sell (매도) 합계	+20% 이상 기대 -20% ~ +20% 기대 -20% 이하 기대	90.6% 9.4%	2015년 2월 2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4단계 (Strong Buy / Buy / Marketperform / Sell)에서 3단계 (Buy / Hold / Sell)로 변경
				100.0%	투자의견 비율은 2014. 7. 1 ~ 2015. 6.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(최근 1년간 누적 기준. 분기별 갱신)